

사회

급증 외국인 범죄 통역대책은 부실

광주 통역사 42명 모두 자원봉사자... 90%는 이주여성

광주지역에 외국인과 관련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의 통역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실 확인은 물론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사건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6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련 범죄(형사처리사건)는 작년 11월까지 202건에 달했다. 경찰서별로도 ▲동부 24건 ▲서부 46건 ▲남부 11건 ▲북부 53건 ▲광산 120건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경찰청과 광주지역 5개 경찰서의 외국인 통역사 보유 및

통역전화 이용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에서 2012년 통역사를 이용한 횟수는 23건에 그쳤고 일선경찰서도 ▲동부 12건 ▲서부 20건 ▲남부 2건 ▲북부 33건 ▲광산 67건으로 외국인 범죄 발생에 비해 절반 수준에서 적게는 20% 정도에 불과했다.

광주지역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통역사는 총 42명이지만 모두 자원봉사자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나오기를 꺼려하고, 이 중 90% 이상이 가정이 있는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경

찰의 요청에 즉각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경찰은 개인적으로 통역인을 고용하거나, 조사 작성 때 필요한 실무영어를 한글로 적어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은 본인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단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동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친구일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29일 광주시 광

산구에서 택시에 탑승했던 20대 미국인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인을 통해 관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는 지인이 외국인 친구의 말을 잘못 해석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관련 광주경찰청 외사계 관계자는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통역사 인원 확충에 어려움을 있다"며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를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가정폭력 꿈짜마

함평경찰, 가정집 진입 사건 처리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전화를 받고 가정집에 진입, 사건을 처리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에서 집 주인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새벽 5시 30분께 112 종합상황실에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와 신고자 위치 추적과 통신 수사를 거쳐 발신지인 함평군 함평읍 A(여·49)씨 집에 출동, 인근 막사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A씨를 구출하고 잠자던 남편(53)을 검거해 조사중이라는 것이다.

A씨의 남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며 A씨를 사찰하고 쇠사슬로

몸을 감아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가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하게 순찰차와 형사 기동대를 출동시켰고 '위급 상황 때 집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택에 출입·확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경찰활동 지침'대로 집 안에 들어가 A씨의 남편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거부하면 현행범이 아닌 한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김지윤기자 dok2000@

나원침 (8726) 김종두



보일러 끄고 잠 70대 숨져

기름 값을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자던 70대 노인이 숨졌다.

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삼교(여·79)씨의 주택에서 심폐가 숨져 있는 것을 안부를 묻기 위해 집을 차았던 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심폐가 누워있는 방에는 전기 장판이 약하게 켜져 있었고 기름이 가득 들어 있는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폐가 기름을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만 켜 놓은 채 잠을 자다 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음주 적발 억울?

○음주운전 단속이 아이스크림만 먹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억울함을 호소.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부근 음주단속에서 면허 정지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56%로 적발됐는데 아이스크림만 먹었다며 체력을 요구했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음주단속에서 입건수치가 넓은 만큼 체력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

/*양세걸기자 hot@kwangju.co.kr

최진실·진영 이어 조성민 까지 자살로 마감한 '비운의 가족사'

고(故) 최진실씨의 전 남편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40·사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진실에 이어 최씨의 동생 최진영, 그리고 그의 전남편 조성민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 가족사가 충격적이다.

6일 새벽 3시40분께 조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여자친구 아파트에 숨겨 있는 것을 여자친구 A(40)씨가 발견했다. 조씨는 욕실 샤워기 거치대에

가죽 허리띠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씨는 전남 여수시 이 아파트에서 A씨와 술을 마셨으며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새벽 0시 11분께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도 한국에서 살 길이 없네요.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아들 없는 걸로 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5분 뒤에는 여자친구에게 "내 인생에 마지막이 자기와 함께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곳곳이 잘 살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조씨는 2000년 12월 최진실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2004년 9월 파경을 맞았고, 최진실씨는 2008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줬다. 이어 최진실씨의 동생이자 조씨의 전 처남인 최진영씨도 2010년 3월 자택에서 목을 매 세상을 떠났다.

최진실씨 사망 후 조씨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놓고 유족과 갈등을 빚다 아이들의 외할머니에게 권리를 넘겼으나 조씨의 자녀 친권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마련돼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연합뉴스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지난 5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모습. 연합뉴스

범서방파 김태촌씨 사망

"학폭 예방 재단 만들고 싶었는데..."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지난 5일 새벽 숨졌다. 향년 64세. 장지는 고향인 담양 대전면 공원묘지로 정해졌다.

김씨는 1970~1980년대 국내 주먹계를 평정했던 인물. 지난 1975년 광주 폭력조직인 서방파의 행동대장을 시작으로 1977년 활동 무대를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군소 조직들을 제압하며 세력을 키웠다.

1992년 '범서방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풀준 수감생활을 한 후에는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면서 설교와 신앙 강연을 해왔다. 이후 몇 차례 사건에 관련돼 기소됐던 그는 감수생

치료를 위해 재작년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지난해 3월부터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는 사망 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재단 설립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었다.

고인의 한 측근은 "생전 고인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일하고 싶어했다"면서 "장례가 끝난 뒤 가족들과 상의해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측근들은 또 김씨가 병원에 있을 때 평소 학교 폭력이 심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고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실했다고

전한다.

김씨는 최근 2~3년간 성경 구절 등을 인용하며 사실상 정신적 멘토 역할을 했던 광주 출신 사업가 박명구(67)씨에게 참회어린 내용을 담은 문자를 수시로 보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씨는 8일 새벽 장례식장에서 광주로 옮겨져 화장한 뒤 담양 묘지에 안치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등은 특별한 상황은 없었으므로 예상하면서도 10여대의 버스가 움직이는 등 장지를 찾는 인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지윤기자 dok2000@

"전세금 보장" 약속 믿었다가...

현역 군인 임대차 계약후 건물 경매 9천만원 날릴판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든 현역 군인이 9000만원의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역 군부대에 근무하는 C(48)원사는 지난 7월초 11억원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광주시 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세를 들었다. 전세 계약 과

정에서 C씨가 근저당액수가 너무 많은 점을 지적하자, 건물주인 최모(여·48)씨는 근저당권자인 모 씨마 음금으로부터 전세금을 1순위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증서나 어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했다.

하지만 C씨는 최씨로부터 전세금 보장에 대한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개월 후 주상복합건물의 소유권이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로 이전됐으며 현재는 경매가 진행중

이다.

C씨는 "전세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최씨와의 계약만을 믿은 채, 확정일자 등 법적 보장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씨는 애초 전세금만을 노리고 계약을 맺은 뒤, 건물을 판만큼 사기가 확실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계약 당시 건물주 최씨는 "전세 계약 이후 소유권이 이전됐고, 전세 계약 전 특약사항에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해주시기로 한 것은 새 주인이 재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관계되는 사항이기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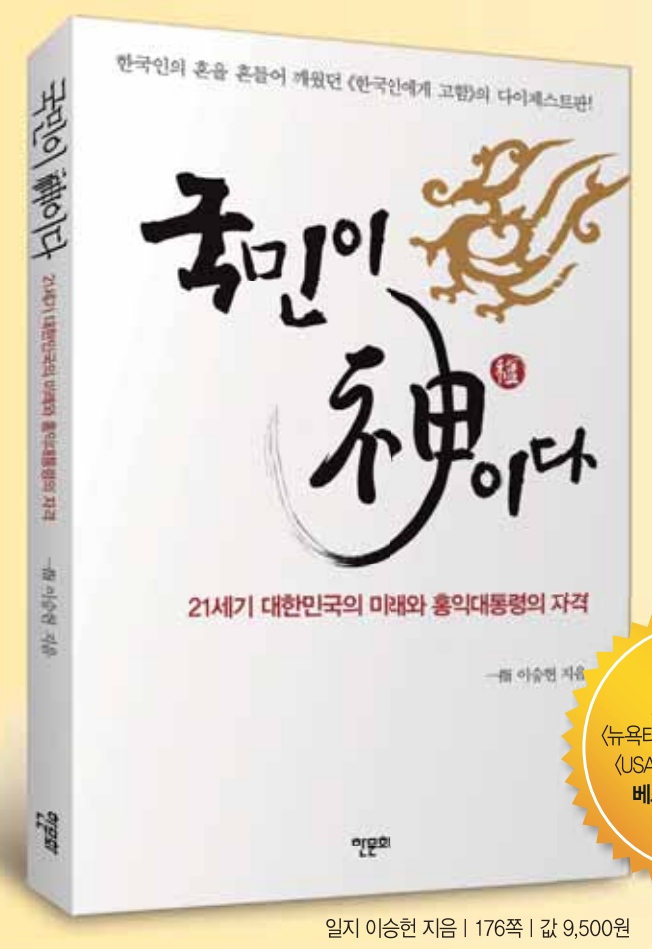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 이승헌 총장이 제시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

'열'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국민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신뢰이란 무엇인가? 신은 창조주이다. 국민이 신인 이유는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창조하고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열이 깨어나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다면 대한민국은 인류 평화를 창조하는 중심국이자, 지도국으로서 정신문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대의이자, 섭리이자, 운명이라고 나는 믿는다. 개인도 국가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럴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신'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하여 개인과 나라와 인류의 가치를 한없이 높이고 가꾸자!”

- 본문 중에서 -



한국인 최초 美 4대 일간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USA투데이) (LA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의 화제의 신간!

이지 이승헌 지음 | 176쪽 | 값 9,500원